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과 건강관련 변인 비교*

방 경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돌봄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0-5세 아동 중 약 45%가 취업모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취업을 한 어머니의 경우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이 같이 주어짐으로써 역할 긴장을 경험하며(Spurlock, 1995), 특히 이들 취업모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관심이 되는 문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것으로 자녀의 건강과 발달, 그리고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이영, 1986;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1990; Scarr, Phillips, & McCartney, 1989). 최근에는 직장 일과 양육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이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서적 발달 및 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rnice & Greenberg, 1990), 전경숙과 조은영(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합리적일수록, 부모역할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아동의 기질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애착행동이 높고 이는 바람직한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녀의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보고하고 있어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이며(Scarr et al., 1989; Harrison & Ungerer, 2002),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

우리나라 연구 중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초등학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신형과 나귀옥(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양육태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부분적으로 아동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취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부보다는 취업 또는 미취업 자체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여부가 아동양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한 외국의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을 경우 양육의 부담감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가중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적으로 외국과는 다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예로, 취업 초산모와 미취업 초산모의

주요어 : 취업모,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학령전 아동, 기질

* 본 연구는 2002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입교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조교수(교신저자 E-mail: ksbang@ajou.ac.kr)

투고일: 2004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04년 2월 28일

역할긴장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을 비교한 고효정(1996)의 연구에 따르면 산후 3개월 취업 초산모는 아기와의 동일시감 형성이 미취업 초산모에 비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모아상호작용 및 이후의 아동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보육시설 4-5세 학령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유능성, 비협조성, 사교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모 유아의 경우 불안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최경순, 1995).

한편 아동의 기질은 출생 시부터의 선천적인 요인도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영유아기를 거쳐 학령전기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발달이 어머니의 취업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주로 학령기와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성격이나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학령전 자녀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매우 미흡한 단계이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종합 고찰한 Harvey(1999)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어머니가 취업한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학령기나 그 이후에 취업한 경우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중 영유아기는 다양한 돌봄제공자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지므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같은 보육기관에 있는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자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업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건강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간호분야에서의 관심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부담감, 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의 기질, 안전한 환경, 사고 및 입원 경험 등 건강관련 변인을 비교해 봄으로써 취업모의 학령전기 자녀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지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취업이 학령전기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령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부담감을 비교한다.

- 취업 및 미취업에 대한 만족 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및 양육부담감을 비교한다.
-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을 비교한다.
-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학령전기 자녀의 건강관련 변인을 비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및 그들의 학령전기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 건강관련 변인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서울특별시 2개구와 광역시인 대전시 2개구, 그리고 중소도시인 수원시에 소재한 유아원 각 두 곳씩, 총 여섯 개 유아원을 선택하여 유아원생 어머니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만 3세 이상 6세 이하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 일반적 사항

연구사회학적 변수, 돌보아 주는 사람, 탁아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용하였다.

· 어머니의 양육태도

Schaefer, Bell and Bayley(1958)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는 본래 애정적(중오적)태도, 거부적(수용적)태도, 외향적(내향적)태도, 의존성조장(독립심권장)태도, 통제적(자율적)태도, 긍정적(부정적)평가태도, 어머니의 의존성(어머니의 독립성)태도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귀영(1998)이 이중 4개 영역만을 선택하여 영역별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애정적, 긍정적 평가,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중 거부적, 통제적 영역은 점수를 역산하여 수용적, 자율적 태도를 나타내도록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5였다.

• 양육부담감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측정하는 양육 부담감은 환경자, 방경숙 및 윤순녕(2001)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5점 척도이며 도구 개발자가 보고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였다.

• 기질

Thomas &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만 3-7세 기질 검사 도구(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를 권기남(1999)이 종일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한 부모용 유아기질 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가지 기질 범주에 대한 72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권기남(1999)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 건강관련 변인

· 가정안전 실천

가정안전 실천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1)에서 개발한 25문항의 가정안전 생활습관 조사지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의 이분문항으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1이었다.

· 기타 건강관련 변인

유아기 자녀의 기타 건강관련 변인은 모유수유기간, 입원경

험, 예방접종 이행상태, 안전사고경험유무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연구자가 작성하여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절차

먼저 서울, 대전, 수원의 유아원 중 각 두 곳씩에서 기관장에게 연구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얻었다. 선택된 유아원의 만 3세-6세 학령전 아동의 가정에 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여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으며, 설문지는 아동을 통해 다시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가정에 보낼 때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300부중 237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209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1.5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부담감, 양육 태도, 그리고 그들 자녀의 성장발달 및 건강관련 변인의 차이는 χ^2 test와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전체 (N=209) n(%)	미취업모 (n=117) n(%)	취업모 (n=92) n(%)	χ^2	p
유아 나이(세)	3	23(11.0)	12(10.3)	11(12.0)	1.544	.672
	4	86(41.1)	46(39.3)	40(43.5)		
	5	80(38.3)	49(41.9)	31(33.7)		
	6	20(9.6)	10(8.5)	10(10.9)		
성별	남아	101(48.1)	53(45.3)	48(51.6)	.827	.363
	여아	109(51.9)	64(54.7)	45(48.4)		
출생순위	첫째	104(49.8)	61(52.6)	43(46.2)	2.649	.266
	둘째	91(43.5)	50(43.1)	41(44.1)		
	셋째이상	14(6.7)	5(4.3)	9(9.7)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62(29.7)	41(35.3)	21(22.6)	9.276	.010*
	전문대, 대졸	121(57.9)	67(57.8)	54(58.1)		
	대학원재학이상	26(12.4)	8(6.9)	18(19.4)		
가족 월수입(만원)	200미만	44(21.1)	31(26.5)	13(14.1)	33.970	.000***
	200-300미만	59(28.2)	42(35.9)	17(18.5)		
	300-400미만	48(23.0)	30(25.6)	18(19.6)		
	400이상	58(27.8)	14(12.0)	44(47.8)		
가족형태	핵가족	168(80.0)	94(80.3)	74(79.6)	.019	.890
	확대가족	42(20.0)	23(19.7)	19(20.4)		

*p<.05, ***p<.00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령전 아동의 나이는 만 4세가 41.1%, 5세가 38.3%를 차지했으며, 성별은 남아 48.1%, 여아 51.9%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49.8%, 둘째 43.5%였으며 미취업모와 취업모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 중 미취업모는 117명(56%), 취업모는 92명(44%)이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 및 대졸인 경우가 57.9%로 가장 많았으나 취업모인 경우 대학원 재학이상도 19.4%를 차지해 미취업모와 취업모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가족의 월수입은 전체대상자의 78.9%가 200만원 이상이었으며, 취업모군은 400만원 이상이 48.7%를 차지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0.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부담감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양육부담감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학력과 가족 월수입을 공변수로 처리하여 ANCOVA로 분석한 결과, 양육태도는 미취업모보다 취업모의 경우 p<.10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냈으나 하부 영역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양육부담감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부담감의 차이

변수	미취업모(n=117) M±SD	취업모(n=92) M±SD	F	p
양육태도	153.39±12.90	157.06±10.32	2.188	.091*
애정적	45.30± 4.71	46.36± 4.69	1.959	.121
긍정적 평가	41.16± 3.88	41.43± 4.34	.095	.963
수용적	37.22± 5.00	37.94± 5.06	.315	.814
자율적	30.58± 4.67	31.46± 5.01	1.169	.323
양육부담감	50.27±10.59	48.68± 9.65	1.507	.214

*p<.10, 공변수: 어머니 학력, 가족 월수입

<표 3> 취업 및 미취업에 대한 만족여부에 따른 양육부담감 및 양육태도

변수	만족(n=151) M±SD	불만족(n=48) M±SD	F	p
양육태도	156.12±12.54	152.50±10.55	1.980	.118
애정적	46.07± 4.95	44.85± 4.13	2.383	.071*
긍정적 평가	41.44± 4.08	41.20± 4.22	.006	.999
수용적	38.18± 5.01	35.81± 4.44	2.447	.065*
자율적	31.17± 4.94	30.87± 4.93	.604	.613
양육부담감	47.95± 9.94	54.71± 8.50	7.139	.000***

*p<.10, **p<.01, ***p<.001, 공변수: 어머니 학력, 가족 월수입

취업 및 미취업에 대한 만족여부에 따른 양육부담감 및 양육태도

또한,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취업 및 미취업의 현 상태에 대해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이분문항으로 질문하여 그에 따라 비교하였는데, 역시 어머니의 학력과 가족 월수입을 공변수로 처리하고 분석한 결과, 양육태도는 애정적, 수용적 양육태도에서 p<.10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만족군은 불만족군보다 양육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3>.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기질 비교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학령전기 자녀에 대하여 영역별 기질의 차이를 어머니의 학력과 가족의 월수입을 공변수로 처리하고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4>.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건강관련 변인

•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건강행위 실천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건강관련 변인 중 가정안전 실천 비교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모유수유 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예방접종 실시 여부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케줄대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시기는 알고 있었지만 시기를 놓친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다<표 5>.

<표 4>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영역별 기질

변수	미취업모(n=117) M±SD	취업모(n=92) M±SD	F	p
활동성	31.31±5.92	30.55±6.49	1.214	.306
리듬성	37.69±5.68	38.06±5.67	.342	.795
접근-회피성	34.76±6.15	33.74±7.57	.755	.521
적응성	42.04±4.52	40.33±5.93	1.956	.122
반응역	24.67±5.65	25.34±5.97	.610	.609
반응강도	29.85±5.99	30.32±6.98	1.543	.205
기분상태	36.14±3.99	37.30±4.09	1.272	.285
주의전환성	38.07±5.97	38.16±5.73	.530	.662
집중력 및 지속력	33.92±4.46	35.07±4.65	1.713	.166

공변수: 어머니 학력, 가족 월수입

<표 5>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건강행위 실천 비교

변수	구분	미취업모(n=117) M±SD, n(%)	취업모(n=92) M±SD, n(%)	F or χ^2	p
가정안전 실천		14.83± 3.20	15.45± 3.32	2.045	.109
모유수유 기간		30.77±30.91	19.95±37.41	5.959	.001**
예방접종 이행	이행	114(97.4%)	84(90.3%)	4.866	.027*
	불이행	3(2.6%)	9(9.7%)		

*p<.05, **p<.01, 공변수: 어머니 학력, 가족 월수입

<표 6>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사고와 입원경험 비교

변수	구분	미취업모 n(%)	취업모 n(%)	χ^2	p
사고경험	없음	67(57.3%)	56(61.5%)	.387	.534
	있음	50(42.7%)	35(38.5%)		
입원경험	없음	86(74.1%)	61(67.8%)	1.003	.317
	있음	30(25.9%)	29(32.2%)		

• 아동의 사고와 입원 경험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사고경험 및 입원경험 유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논 의

빠르게 증가하는 취업모 비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자녀의 다양한 건강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양육부담감의 차이 및 자녀의 기질과 가정의 안전환경, 사고 등을 포함한 건강관련 변인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가족의 월수입을 공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모는 미취업모보다 하부영역에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에 따른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 안현숙(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서 얻은 관리 기술이 효율적인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한 Crouter(1984)의 연구나 직장 동료들간의 비공식적인 우정 또한 아동양육에 대해 충고나 준거기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한 Greenberger et al.(1989)의 연구와 같이(문혁준, 2001에 인용됨)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외국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그에 대한 만족 여부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Scarr, Phillips & McCartney, 1989; Harrison & Ungerer, 2002), 본 연구에서도 취업 또는 미취업의 현 상태에 대한 만족군은 불만족군보다 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한 박성연과 임미리(2002)의 연구에서도 취업모가 경험하고 있는 직업관련 특성 및 탁아기관의 질, 심리적 안녕감은 서로 유기적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취업모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매개로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 부담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 난이도 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이은혜(199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박성옥(1997)의 연구에서도 취업상황 자체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기보다는 취업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심리적 건강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취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장을 갖거나 갖지 않은 현 상태에 대해 만족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양육부담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가 직장인과 어머니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해 미취업모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으며,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 남편의 지지 등 다른 관련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이상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영아기나 유아기의 어머니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 해석에 주의할 요하는 부분이다.

다음 어머니의 취업이 유아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학력과 가족의 월수입을 공변수로 처리하고 유아의 기질을 하부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취업모 자녀들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일부 속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취업모 유아의 불안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최경순(199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강호(1998)의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에 있어 미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유의하게 리듬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가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의 성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취업모의 지지와 상담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의 건강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변수로 모유수유, 가정안전 실천, 예방접종 실시여부, 입원 및 사고경험을 비교하였다. 모유수유를 지속한 시기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직장 때문에 모유수유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취업모의 모유수유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타 연구결과들(변수자, 1995; 신희선과 전미양, 1996; 박천만, 2002; Hill, 2000)과 일치하는 것으로, 취업모의 모유수유 증진방안이 앞으로 더 많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인 의식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가정안전 실천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바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실천을 미취업모 만큼은 수행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두 군 모두 25가지의 안전실천

항목 중 평균적으로 약 15항목만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아의 안전사고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가정안전 실천 증진을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안전실천 측정도구는 실천하는지 안하는지의 이분문항으로 되어있는 도구로서, 때로는 실천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경우 대답이 모호할 수 있어 내적일관성계수가 .61로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도구는 안전실천 여부를 묻는 각 문항에 대하여 항상 실천, 가끔 실천, 전혀 실천하지 않음 등으로 답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실태와 사고 경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대상자의 73.1%가 사고를 경험하였으며(김희순, 강규숙, 이은숙, 1999) 아동의 행동특성에서도 전반적으로 사고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차형, 김진정, 이정은, 1998). 본 연구에서도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사고경험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병원에 갈 정도로 사고를 당한 경험은 각각 38.5%, 42.7%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예방접종 실시 여부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케줄대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시기는 알고 있었지만 시기를 놓친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어머니의 직장 일로 인해 접종일을 잊지는 않았지만 제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추어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아동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하며, 돌보는 사람이 대신해서라도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취업모에게 강조하여 당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하겠다. 또한 진료시간의 연장 등 취업모를 위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본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입원경험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심각한 건강문제의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학령전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이에 따른 유아의 기질, 그리고 건강관련 변인을 비교함으로써, 증가하는 여성 취업의 시대에 발맞추어 취업모의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며 자녀양육에 대한 취약한 부분은 파악하여 간호중재를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간호의 중요 부분인 아동의 사전건강지도 및 부모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이 되는 아동의 건강관리와 성장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취업률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양육과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및 그들의 학령전기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 건강관련 변인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대전, 수원의 어린이집을 통하여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편의표집 하여 2002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9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경자 등(2001)의 양육부담감 도구, Schaefer et al.(1959)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Thomas & Chess(1977)의 유아기질 측정도구, 한국여성단체 협의회(2001)의 가정안전 실천 도구와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변인에 관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모와 미취업모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학력과 가족의 월수입은 공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는 $p < .10$ 수준에서 취업모가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부담감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갖거나 갖지 않은 현 상태에 대해 만족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만족군은 불만족군보다 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었으며($p < .10$), 양육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00$).
- 취업모와 미취업모군의 학령전기 자녀의 영역별 기질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가정안전 실천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모의 모유수유 기간은 미취업모보다 유의하게 적었으며, 예방접종 실시 이행률도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자녀의 사고경험 및 입원경험 유무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취업모는 미취업모보다 모유수유나 예방접종 이행률은 떨어지지만, 가정안전 실천이나 자녀의 사고 및 입원 경험, 기질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양육부담감에는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직장유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양육부담감에서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이 취업여부보다는 이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어머니의 취업은 긍정적인 효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증가하는 여성 취업의 시대에 발맞추어 취업모의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고 자녀양육에 대한 취약한 부

분은 파악하여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아동의 사전건강지도 및 부모상담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효정 (1996).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기남 (1999). 유아의 성별 및 기질에 따른 동화 선호도: 낭만적, 폭력적 및 무서운 그림동화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형, 나귀옥 (1994).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태도 및 아동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논문집, 17(3), 873-883.
- 김희순, 강규숙, 이은숙 (1999).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실태. 아동간호학회지, 5(3), 349-357.
- 문혁준 (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박성연, 임미리 (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박성옥 (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2), 37-45.
- 박천만 (2002). 모유수유 실천과 관련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2), 23-43.
- 변수자 (1995). 취업모의 모유수유 실태와 지속방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37-152.
- 보건복지부 (2001). 2000년 보건복지부 통계.
- 신희선, 전미양 (1996). 모유수유 결정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2), 35-44.
- 안현숙 (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교육, 9(1), 93-102.
- 이강호 (1998).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수유방식이 아동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혜 (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이자형, 김신정, 이정은 (1998).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향 예측도. 대한간호학회지, 28(3), 662-675.
- 장귀영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숙, 조은영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 심리적 안정도, 결혼만족 및 아동특성이 유치원 아동의 애착행동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113-133.
- 최경순 (1995).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의 사회적

- 능력과 관련변인.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40, 315-335.
- 한경자, 방경숙, 윤순영 (2001).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운영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결과분석: 서울시 일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49-59.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0). 전문직, 사무직 취업모의 태아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1). 2001년 안전문화사업 가정 내 어린이 안전실태 조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Cm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outer, A. C. (1984). Participative work as an influence on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5, 71-90.
- Greenberger, E., Goldberg, W. A., Hamill, S., O'Neil, R., & Payne, C. K. (1989). Contributions of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o parents' wellbeing and orientation to work.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755-783.
- Harrison, L. J., & Ungerer, J. A.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at 12 months postpartum.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58-773.
- Harvey, E. (1999).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parental employment on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445-459.
- Hill, P. (2000). Update on breastfeeding: Healthy people 2010 objectives. *MCN*, 25(5), 248-251.
- Scar, S., Phillips, D., & McCartney, K. (1989). Working mothers and their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4(11), 1402-1409.
- Schafer, E.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purlock, J. (1995). Multiple roles of women and role strain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6, 501-50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Inc.

Childrearing Attitude and Burden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and Temperament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Bang, Kyung-Sook¹⁾

1)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Purpose: This comparative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child-rearing burden, and temperament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Method:** Samples were recruited in child care centers in Seoul, Daejeon, and Suwon. 209 mothers with children age of three to six participated. **Result:** Employed mothers showed more positive child-rearing attitud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aring burden. Also, maternal attitude and child-rearing burden were influenced by satisfaction on the employment state. Children's temperament subscales were not different in two groups. Breast feeding and compliance on vaccination were done better by unemployed mothers. However, home safety, experience of accident and hospitalization of children were not affected by maternal employment. **Conclusion:** Maternal employment has positive influence in some aspect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arent counseling and anticipatory guidance for employed mothers.

Key words : Maternal employment, Child-rearing attitude, Child-rearing burden, Preschooler, Tempera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200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ng, Kyung-Sook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n 5, Woncheon-dong, Youngtong-gu, Suwon 443-721, Korea

Tel: +82-31-219-5144 Fax: +82-31-219-5094 E-mail: ksbang@ajou.ac.kr